

# 명품 섬들의 고향 신안, 해양힐링 관광도시로 뜬다

‘떠오르는 해양관광 명품 섬들의 고향 신안’ 건설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안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신안군은 성장동력기반 조성을 위한 차질없는 재정 확보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한 군민소득 증대 등 올해 역점을 두어야 할 ‘군민우선, 군민중심’의 군정 4대 핵심전략을 확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광객 5백만명 시대 조기 실현,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 도약=신안군은 교통망 확장에 이어 신안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을 더해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고자 한다. 특히 군 전체를 이어줄 십자형 도로의 중심인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는 올해는 신안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십자형 교통망 구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양힐링 관광도시로 도약과 수산업 분야 재정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도 77호선 신장-북룡 구간 시설개량 사업비 462억원을 확보했고 국도 2호선 압해 학교리에서 송공간 시설개량 사업비가 국가사업에 반영됐다. 또 군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4차선 직선화사업 착수와 임자대교와 추포-암태, 한운-사치 연륙-연도교 사업 발주 등으로 십자형 도로망의 실제도 완성되기는 상태다.

이외에도 해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안좌 보호항을 확대해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신축을 마쳤고 도서 낙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용역발주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늘길을 이어줄 흑산공항 역시 2021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처와 협조해 2월 말 보완자료를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출, 올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암태 종합 복합타운, 장산도 역사문화 관광지원화, 안좌 김환기 미술관건립, 세계해태상 테마공원, 섬 압석전시관, 한국 본재공원, 도서해양 자생식물원, 천일

## 관광객 5백만명 시대 열기

### 올해 새천년대교 개통으로

### 십자형 도로망 구축 박차

### 암태복합타운·자생식물원 등

### 관광 인프라 확충 3700억 투입

### 흑산공항 연내 착공 위해 총력

### 농수산업 경쟁력 키우기

### ‘섬섬옥미’ 재배단지 확대

### 고소득 특화품목 집중 육성

### 신품종 중요 개발 소득 창출

### 천일염 생산·유통 구조 개선

염 근대유산 박물관 등 10개 사업에 총 37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지역축제의 몸집을 키우고 신안군에 속한 1025개 섬이 가진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세일요트 상품과 중부권을 중심으로 8개 코스 500km의 자전거 천리길 투어를 개발할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 활용 농수산업 선도, 지역경쟁력 향상 소득 증가=신안군은 타 시·군과 비교 우위에 있는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관광객 500만명 시대의 진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안군의 주요 산업은 농수산업으로 인구의 80%가 종사하며 연간 55만, 7200억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정정 섬 이미지에 걸맞은 고품질의 친환경 특수미 ‘섬섬옥미’ 재배단지 확대와 브랜드 가치



새해부터 ‘떠오르는 해양관광 명품 섬들의 고향 신안’ 건설을 위한 신안군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새천년대교. <신안군 제공>

를 높이고, 남도 최고 신안쌀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무화과와 단호박, 시금치, 생강 등 권역별 고소득 특화품목을 집중육성하고, 가족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의 강점을 살려 ‘동물 복지형 한우단지’를 조성해 관광신안에 걸맞은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밖에도 자생식물을 증식·보급할 수 있는 ‘도서 자생식물 연구센터 및 식물원’을 조성해 유럽과 동남아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군은 1000여개의 섬과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바다, 드넓은 갯벌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수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생각이다.

암태읍에 ‘신안 수산연구소’를 건립해 섬낙지와 해삼, 개체굴, 새우 등을 연구하고 신품종 중요개발과 생산을 통해 새로운 어업소득을 창출

해갈 계획이다.

연안특성에 적합한 미래 고부가가치 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김 종류 안정화와 갯벌 연안 바다목장화, 해삼 씨뿌림, 수산종묘 방류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무분별한 남획으로 예년에 비해 절반에 그친 낙지자원의 회복을 위해 안좌 반월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확대 지정 받는 등 외부어선 진입을 차단하는 브랜드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고품질 천일염 생산·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일염 포장재 생산 등 종합처리장 건립과 장기저장시설 확대, 합수 정수처리시설 지원, 천일염 수매사업, 수출 마케팅 사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증도·임자도로 수학여행 오세요”

### 신안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신안군이 지역 섬을 찾을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발을 뺀다.

신안군은 슬로시티와 천일염의 고장 ‘증도’와 명사 30리 대광해수욕장, 아이돌 힐링의 섬 ‘임자도’를 찾는 미래 잠재적 관광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힐링의 섬 임자도는 청정 갯벌체험과 갯고랑 카약체험, 그리고 12km에 달하는 대광해수욕장의 승마체험은 임자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추억거리다.

여기에 KT 기가아일랜드에서 운영하는 드론 체험교육과 AR·VR과 같은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할 예정이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증도는 맨발로 걷는 갯벌 프로그램, 소금을 만들어보는 염전체험, 아토피에 탁월한 소금동굴 체험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캄캄한 밤에 떠나는 ‘별 헤는 섬’ 프로그램은 해변 파도소리와 함께 반짝이는 별을 직접 볼 수 있다.

증도는 한국 관광 100선,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임자도는 행정자치부 유가철 기고 싶은 섬 33선에 선정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임자도와 증도는 학생들의 학습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되었다”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관광객 500만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농민들이 신안 섬초를 수확하고 있다.



증도 태평염전 전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oticon  
PEOPLE FIRST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